

- 2019 한발제일교회 사생결단 기도회 2/18 - 구원이 확인되는 방법

-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21-23)

“구원파”라는 이단에서 아래의 질문들을 던지며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게 합니다.

-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 "당신의 구원을 증명할 열매는 무엇인가?"

위와 같은 질문들에 이어지는 질문은,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를 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들먹이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회개의 열매를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얼핏 듣기에는 분명히 옳아 보이고, 합당한 요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매우 인간적인 열매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 7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 9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3:7-9)

이단들은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들의 삶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의도한 바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 즉 무언가를 지키고 준수한다는 것이 열매인 줄 알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1. 비단 열매라고 여겨질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열매에 대한 최종평가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 A. 구원과 회개에 대한 열매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 B. 양질과 수량에 의해 평가되어질 수 없습니다.
- C.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D. 열매가 많은 것 같지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하나님의 뜻과 그 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에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열매에 대한 평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 A.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열매인지를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 B. 그 때 그 순간의 열매가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를 확인하기가 애매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C. 최종적인 모든 확실한 평가는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3. 구원 얻은 자들의 관심은, 열매에 대한 평가가 아닌 쓰임을 받는 것 자체 만으로 기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 A. 성령하나님의 전적인, 절대적인 역사이기에 우리의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 B.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 C. 기도하던 중에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분이 깨달은 것이 실행되어지고 순종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며,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 D.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한 그 자체로

감사하면서 동시에,

- E. 그렇게 쓰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 F. 구원의 확신이 열매를 통해 강해 진다기 보다는, 성령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으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5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6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7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8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라
11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후서 1:5-11)

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 꺾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10-14)

우리가 기독교인이란 사실은 완벽한 삶을 살아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통해 알 수 있다. - 존 맥아더

4.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열매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입니다.

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14)

- A.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열매로 된 것이 아닙니다.
- B. 회개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 하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 C. 왜냐하면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 D. 우리의 구원을 위한 최초의 열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 E. 그리고 그 최초의 열매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열매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 F. 다른 모든 열매는 주님을 뵈을 때에 최종확인 되어 지고 상급으로 누려질 것이지만, 구원 이후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맺은 열매라 해도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거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 G. 어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맺은 열매가 오늘 내가 지은 죄에서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 H. 죄인 된 우리의 존재적 상태로 인해, 수많은 성령의 열매를 맛보고 누렸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말입니다.
- I. 그리고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우리의 열매를 갖다 대며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 J. 아무리 성령의 열매라고 할지라도 그 열매가 우리를 회복하고 다시 살릴 근거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 K.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우리는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 L. 이러한 영적자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 방향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